

제19차 중국공산당 대회의 함의와 전망에 대한 연구

박광득(대구대학교)

논문요약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는 포스트 시진핑과 시진핑 집권 2기의 정책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대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명기하면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권력집중 현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덩샤오핑과 결별하고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라섰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치적인 발전보다는 정체와 후퇴로 회귀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없지 않다. 19차 당 대회는 중국의 국내정치의 변화, 경제정책, 대외관계 등의 변화와 향후 중국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동기인 동시에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19기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인적구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시진핑 집권 2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후계자 지명 철회 문제, 시진핑 사상, 대외정책 및 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로 당 대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당 대회 이후의 중국 정치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19차 중국공산당 대회, 시진핑, 시진핑 사상, 신형국제관계, 중미관계

I. 서론

2017년 10월 18일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어 시진핑 체제의 2기 집권 여부와 향후 5년 동안 중국공산당이 추진하여야 할 정책 방향과 지도부에 대한 인적 개편이 있었다. 이번 당 대회는 지도자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연임여부를 묻는 대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되는 것이 과거의 관례라는 점에서 세인의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권 1기의 시진핑 정부의 정책과 활동을 종합해 보면 과감한 변화와 함께 강력한 권력 탄생이 예고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시진핑 집권 1기는 부패의 척결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정적을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정치국 위원까지 척결하는 정책을 강구하면서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발표되는 업무보고와 지도부의 새로운 인선은 시진핑 집권 2기 청사진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 2기를 맞는 당 대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포스트 시진핑 시대의 지도자는 누구인가에 집중되어 있을 만큼 후계자 지명은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후계자를 지명을 철회한 것은 과거 당 대회와 차별화된 결과라는 점에서 제19차 당 대회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시진핑의 지도이념을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당장에 명기하였다는 것이다. 생존해 있는 지도자의 지도이념을 사상이라는 이름하에 당장에 명기한 것은 마오쩌둥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시진핑의 위상이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자리매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평가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정치, 변화, 경제정책, 대외관계

등과 같은 변화는 향후 중국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동기인 동시에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논문의 대한 비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19차 당 대회가 끝난 직후에 분석하는 논문으로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진행 중에 있는 시사적 주제라는 시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시진핑이 발표한 업무보고¹⁾와 1중전회를 통해 발표한 지도부의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을 부연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의 자료는 내재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자료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²⁾

II. 19기 중국공산당 지도부 인적구성과 의미

5년 마다 개최되는 당 대회의 최대 관심은 정치국 상무위원의 교체이며, 이는 차기 지도부의 방향을 설정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다. 제19차 당 대회에서 지명한 지도부의 인적 구성을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중국공산당 19기 지도부 구성 현황

총서기	정 치 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중 앙 위 원	전국대표대 회 대 표	공산당원
1명	7명	25명	204명	2287명	8875만명
시진핑	시진핑 포함	정치국 상무위원 포함	후보위원 171명 정치국원 25명 포함	지역 및 직능 대표	세계최대

*자료원 :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대회가 세인들의 관심을 끄는 원인 중

1)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原文).” 『新华网』, 2017년 10월 27일, http://news.xinhuanet.com/politics/19cpcnc/2017-10/27/c_1121867529.htm(검색일:2017.10.28) 참조.

2) 논문의 완성도를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비교정치적 또는 국제정치적 이론에 대한 논의는 본 주제가 가지고 있는 시사적인 측면과 당 대회에 대한 초보적인 자료 분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추후 발전시킬 예정이다.

의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의 축제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14억 인구 중 당원이 8875만명으로 인적 구성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그리고 당원 대표 2287명이 5년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중앙위원 204명과 후보위원 171명을 선출하고, 그 중에서 중국의 정치 핵심부라고 볼 수 있는 정치국 위원 25명을 선출한 다음, 권력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중국공산당 지도부를 구성한다.

당 대회이후 가장 큰 관심은 서열 1위의 총서기이외에 나머지 6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9차 당 대회에서 선발된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의 구성을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중국공산당 19기 정치국 상무위원 현황

성 명(나이)	직 책	정 치 노 선	비 고
시진핑(習近平 64)	당 총서기, 국가주석	유임	태자당
리커창(李克強 62)	국무원 총리	후진타오 계열, 유임	공청단
리잔수(栗戰書 67)	전인대 상무위원장	시진핑 계열	태자당
왕 양(王洋 62)	정협주석	후진타오 계열	공청단
왕후닝(王滬寧 61)	중앙서기처 서기	불분명	불분명
자오러지(趙樂際 60)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시진핑 계열	태자당
한정(韓正 63)	상무부 총리	장쩌민 계열	상하이방

*자료원 :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직책은 확정되지 않은 예상 직책임).

정치국 상무위원은 중국 권력서열 1위에서 7위까지로 중국의 모든 정책 결정이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결정되고 있고, 중국이 집단지도체제라고 평가하는 것도 정치국 상무위원의 구성에서 나오는 말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정치국 상무위원의 구성은 계파간 합의를 통하여 구성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적 구성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국 상무위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정치적 합의를 유도하였다.³⁾ 특히 어느 계파에서 수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가 여부는 현 정권의 권력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 권력의 향방을 예측하는 하나의 상수라고 볼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명의 정치국원은 시진핑 계열이 3명, 후진타오 계열이 2명, 장쩌민 계열 1명, 불분명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권력 3대 계파라고 볼 수 있는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3대 계파간의 합의와 투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직까지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7명 위원 중 시진핑 계열인 태자당 3명과 불분명을 합치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제외한 18명의 정치국 위원은 3명만 유임되었고, 15명은 교체되었다는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을 제외한 18명 중 유임된 쉬치량(許其亮)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포함하여 13명이 시진핑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어 약 72%가 시진핑 계열이다. 따라서 집권 2기 시진핑은 막강한 권력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강력한 통치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공산당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을 시진핑이 장악하였다는 점은 시진핑이 마오쩌둥과 같은 권력을 구사하여 장기집권의 길로 들어섰다는 평가를 내리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력이 집중되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만만치 않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호의 순항에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⁴⁾

시진핑이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을 장악한 것은 10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관례를 타파하여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라는 선부른 평가가 난무하고 있다는 점과 후계자를 낙점하지 않은 정치국 상무위원 인선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의미있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집권 1기의 시진핑 정부가 부정과 부패

3) 후진타오 집권시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의 수가 9명으로 늘었으나, 시진핑 집권시에는 다시 7인으로 복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4) 周喜安, “要充分认识党的十九大的重大意义和重大成果 深入学习领会全面贯彻落实大会精神.” 『人民网』, 2017년 10월 31일, <http://sc.people.com.cn/n2/2017/1031/c365886-30873740.html>(검색일:2017.10.30.).

의 청산이라는 구호아래 정치적 선배, 정적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지도부에 속하는 인원 120-140여명을 처단하였다는 것은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장기 집권을 노린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중국 정치구도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못지않은 또 하나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중앙군사위원회이다. 마오쩌둥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을 장악하는 것은 정치권력을 공고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인식하여 왔다. 따라서 역대 중국 지도자들은 정치권력 이외에 군을 장악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덩샤오핑은 정부와 당보다는 군사위 주석을 장악함으로써 중국의 정치권력을 통제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후진타오는 집권 1기에 당의 권력은 장악하였지만, 군의 권력을 장쩌민이 가지고 있어 3.5세대 지도자로 저평가한 것도 군을 장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당 대회를 통해 11명이었던 군사위 위원을 7명으로 축소하여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7명 중 3명은 유임시키고 나머지 3명도 시진핑 계열로 임명함으로써 7명 모두가 시진핑 측근으로 구성되었다⁵⁾는 점은 군을 장악하여 정치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에 의한 정치권력의 붕괴를 사전에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⁶⁾

Ⅲ. 시진핑 집권 2기의 특징

본 장에서는 당 대회 결과 집권 1기와 비교하여 새롭게 등장한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5) 중앙군사위원회의 보편 시진핑과 유임한 쉬치량 부주석, 웨이펑허(魏鳳和) 로케군 사령관, 장유사(張又俠) 장비발전부장이고, 마오화(苗華) 정치공작부장, 장성민(張升民) 군기율검사위 서기, 리궈청(李作成) 연합참모부장은 새로 임명된 인물이다.

6) “중앙군사위 신임 3명도 모두 시진핑 측근.” 『조선일보』 2017년 10월 26일.

1. 후계자 지명 철회

제19차 당 대회에서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포스트 시진핑이후의 후계자는 누구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 대회이전까지만 해도 왕치산(王岐山) 기율위원회 서기의 연임문제로 설왕설래가 있었으나 칠상팔하(七上八下)의 관례⁷⁾에 따라 퇴임하였고,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 쑨정차이(孫政才) 전 충칭시 서기가 계파간의 합의로 낙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성 보도가 있었으나 낙마하고, 천민얼(陳敏爾) 현 충칭시 서기가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당 대회 결과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폐막되었다. 아직까지도 이들이 왜 낙점되지 않고 무산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역사에서 지도자들은 권력의 안정적 승계를 위하여 차세대 지도자를 지명하는 것을 하나의 관례로 하여 왔고, 장쩌민 시대부터는 국가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제도화하고 집권 2기 당 대회에서는 후계자를 지명하여 권력 승계를 시스템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9차 당 대회는 덩샤오핑이 도입한 격대지정(隔代指定)⁸⁾의 전통을 깨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3〉 각 세대 지도자별 후계자 지명 현황

구 분	1 세대	2 세대	3 세대	4 세대	5 세대
지도자명	마오쩌둥 시대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대	후진타오 시대	시진핑 시대
후계자명	·류샤오치(劉少奇, 사망) ·덩샤오핑(실각) ·린바오(林彪, 사망) ·화궈펑(華國鋒, 실각)	·후야오방(胡耀邦, 실각) ·자오쯔양(趙紫陽, 실각) ·장쩌민	·후진타오(낙점)	·시진핑, 리커창(계파간 합의 낙점)	·없음

*자료원 : “시진핑, 2인자의 난 핑계삼아… 후계 투톱 발탁 안할 듯.” 『조선일보』 2017년 10월 21일.

7) 왕치산은 올해 69세로 67세는 유임되고 68세 퇴임한다는 관례를 깨고 시진핑의 측근으로 남아 있기에는 어려운 난관이 있었다는 평가이다.

8) 차기 후보를 미리 정해 권력의 승계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역대 지도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오쩌둥 시대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후계자를 지명하여 왔으나, 시진핑은 사실상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당 대회에서 만들어진 관례를 깨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계자 지명은 예측불허의 사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계자 지명 관례는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안정화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후계자가 실각되거나, 의심스러운 사망으로 교체되는 불운을 겪어 왔다. 후계자 낙점 시스템은 후계자가 강하면 기존 권력에 도전하고, 약하면 계파간의 권력투쟁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이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집권 2기에 후계자를 지명한 것은 권력 승계의 투명성과 안정적 정권이양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과 더불어 집단지도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차기 집행부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¹⁰⁾

시진핑은 집권 1기 동안 부패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정적을 제거함으로써 집단지도체제에서 1인지도 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하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후계자의 철회에서 촉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19차 당 대회를 보는 서방의 시각도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와해되었고,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체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논평을 내 놓고 있다.¹¹⁾ 만약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집권 2기를 그대로 간다면 임기 10년이라는 불문율은 무시되고 3임 또는 그 이상의 집권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시진핑은 당 대회이전에는 당 주석제 도입과 정치국 상무위원의 축소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집단지도체제의 유지라는 저항으로 인하여 보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

9) “시진핑, 2인자의 난 핑계삼아… 후계 투톱 발탁 안할 듯.” 『조선일보』 2017년 10월 21일.

10) “外媒：习近平不设接班人的五个原因.” 『大紀元』, 2017년 10월 25일, <http://www.epochtimes.com/gb/17/10/25/n9770477.htm>(검색일:2017.10.30).

11) “英媒：中共已经成熟 西方应该醒醒了.” 『欧洲时报网』, 2017년 10월 26일, <http://www.oushinet.com/china/chinaneews/20171026/276122.html>(검색일:2017.10.27).

주석제 도입은 사실상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 1인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무위원의 축소는 계파간 권력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측근들만으로 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시진핑의 향후 권력 구상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후보자 지명을 철회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상무위원 7인중 시진핑 자신과 유입한 리커창을 제외한 나머지 5명 모두에게 후계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후계자로 지명받기 위해서는 시진핑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충성유발 효과로 인한 내부적인 권력투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¹²⁾ 그러나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상무위원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 지속해 나갈 수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집권 연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¹³⁾

2. 시진핑 사상의 등장

제19차 당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하나는 상술한 바와 같이 후계자 지명의 철회와 지도부에 시진핑 군단(習家軍)을 형성하여 시진핑 중심의 정치권력을 장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중국의 지도이념으로 당장에 명기된 시진핑 사상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당장에 표기된 중국공산당 역대 지도이념

지도자명	지도이념	주요내용	집권 시작년도	당장 명기년도
중국공산당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1921년	
마오쩌둥	마오쩌둥 사상	농민과 노동자 연합 계급투쟁	1935년	1945년(생존 시)

12) “十九大政治局常委：习李连任五人新晋 未确定接班人。” 『中文网』, 2017년 10월 25일, <http://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41745264>(검색일:2017.10.30).

13) 何清涟, “孙政才落马, “接班人”名分惹的祸?” 『大纪元』, 2017년 7월 28일, <http://www.epochtimes.com/gb/17/7/28/n9473730.htm>(검색일:2017.10.20).

덩샤오핑	덩샤오핑 이론	계급투쟁보다 생산력 향상에 중시	1978년	1997년(사후)
장쩌민	3개대표 이론	공산당이 기업가도 대표	1989년	2002년(은퇴 후)
후진타오	과학발전관	과학적 발전을 통한 조화사회 구현	2002년	2007년(집권2기)
시진핑	시진핑 신시대사상 共富論,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2012년	2017년(집권2기)

*자료원 : 조선일보 2017년 10월 25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표 4〉에서 보듯이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중국공산당 당장에 자신이 주장하는 지도이념을 삽입해 왔다. 이는 자신의 권력과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매 지도자마다 또 다른 이름의 지도이념을 만들어 당장에 삽입한다면 지도이념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제19차 당 대회후 발표된 시진핑 사상은 과거와 차별화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도이념의 변천을 보면 “주의-사상-이론-관”으로 이어지면서 무게가 점차 약해지는 인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시진핑의 지도이념은 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후진타오, 장쩌민, 덩샤오핑을 넘어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라섰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오쩌둥과 같은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여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체제로 가겠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⁴⁾

시진핑 사상의 내용을 보면 과거와 결별하고 시혁심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덩샤오핑 시대와의 작별을 고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근년의 중국 정치 방향은 덩샤오핑이 설계한 개혁개방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틀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혁개방 정책을 거

14) “당헌에 새겨진 시진핑 사상…중앙委 점령한 ‘시진핑 군단.’ 『조선일보』 2017년 10월 25일.

부할 수 없는 분위기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책을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사상은 덩샤오핑이 주장하는 선부론을 대신하여 공부론을 주장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주장하고 있고, 덩샤오핑이 제시한 중등국가의 목표를 수정하여 세계 선두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별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새로운 모순론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순에 대한 수정을 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과거에는 수요와 생산력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력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모순은 현대에 맞지 않는 진부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현대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은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 불충분 간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빈부격차와 불균형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모순을 적시하고 있다.

셋째, ‘신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⁵⁾ 신시기가 아닌 신시대라는 점에서 시대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는 시기보다는 장기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진핑의 구상이 장기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사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¹⁶⁾ 다시 말해서 시진핑은 통치이념을 전개할 시간적 개념을 길게 잡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다는 선부론 판단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¹⁷⁾

시진핑 사상은 그동안 시진핑이 주장하여 왔던 중국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꿈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2020년에는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달성하고, 2035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15) 王传宝, “把握新的历史方位, 续写新的时代华章.” 『光明网』, 2017년 10월 18일, http://guancha.gmw.cn/2017-10/18/content_26541742.htm(검색일:2017.10.18).

16) 시진핑이 선언한 신시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위대한 승리를 계속하는 시대, 둘째, 전면적 소강사회를 달성해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로 들어가는 시대, 셋째, 전체인민의 공동의 부(共富論)를 실현하는 시대, 넷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꿈을 이루는 시대. 다섯째, 중국이 세계의 중앙에 근접하여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시대를 함축하고 있다.

17) “시진핑 ‘신시대’ 선언은 덩샤오핑 시대에 작별을 고한 것.” 『중앙일보』, 2017년 10월 31일.

혁신형 국가건설을 달성하고, 2050년에는 부강, 민주, 문명, 조화의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시진핑 사상의 신 시대는 2050년까지라는 장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시진핑 사상의 당장 삽입은 역대 지도자의 지도이념의 당장 삽입과는 차별화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지도이념을 생존 시 당장에 명기한 사람은 마오쩌둥 이후 처음이며, 덩샤오핑도 사후에 자신의 이론을 당장에 명기 하였고, 다른 지도자들은 퇴임 후에 당장에 삽입하여 왔으나 시진핑은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자신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사상을 당장에 명기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¹⁸⁾ 다시 말해서 시황제의 출현이라는 말은 중국공산당을 통제하는 구심점이 부재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사상은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의 모든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목표는 미국을 능가하는 현대적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실현 가능할 것인가는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⁹⁾

3. 신형국제관계의 등장

제19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시진핑 집권 2기의 외교적 키워드는 ‘신형국제관계’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한 후 중국은 중미관계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형대국관계를 미국에 주장

18) 刘元春, “五大发展理念是新时代科学发展的抓手.” 『央广网』, 2017년 10월 27일, http://news.youth.cn/gn/201710/t20171027_10928987.htm (검색일:2017.10.30).

19) 정재홍, “중국꿈 실현을 위한 시진핑 1인 지배체제 본격화.” 『세종논평』 No.2017-43, 2017, pp. 1-2 참조.

하였다. 이는 중국이 주도가 되는 국제사회의 구도로 구형체제에서 벗어나 미국과 같이 하는 대국관계를 형성해 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였으나,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무반응으로 중국은 이를 포기하고 다시 힘을 길러 대처하자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듯하였다. 이를 두고 중국의 대외정책이 또 다시 도광양회로 돌아간 것이라 하여 ‘신도광양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어 새로운 중미관계를 기대하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로 인하여 신형대국관계는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 19차 당 대회를 통하여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신형국제관계이다. 그러나 신형국제관계가 신형대국관계로 대체되어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는 측면을 주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신형국제관계의 등장 배경은 신형대국관계의 실패라는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신형국제관계로의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진핑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는 신형국제관계를 추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상호 존중, 공평정의, 합작공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그동안 중국이 추진하여 왔던 대외정책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주장으로 의아해 질 수 있는 표현이다. 업무보고 내용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중국의 향후 대외정책은 모든 국가를 존중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차원에서 협력하고 상생해 나가는 평화외교를 모토로 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중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작성하였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미관계는 G2국가, 신형대국관계 등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미국우선주의가 중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인 미국우선주의로 국제사회에 힘의 공백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대신하면서 대국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은 평

화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외교적인 수사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주장하여 왔던 대국주의와 패권주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미관계의 재정립과 국제사회에 대한 시진핑 집권 2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형국제관계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동안 중국외교는 덩샤오핑이 주장하여 왔던 도광양회와 유소작위라는 소극적 외교전략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외교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분발유위(奮發有爲)²⁰⁾로의 전환을 천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힘을 기를 때까지 기다려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수동적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분발하여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중국외교가 수세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공세적 외교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계기로 미국과 여계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현대적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경쟁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관계로 업무보고에서 군사굴기라고 해석하는 군의 현대화 전략을 주장하였다. 그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기계화 정보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는 국방 및 군대의 현대화를 달성하며, 2050까지는 세계일류 군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군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한 중국의 의지라고 보아야 한다. 향후 중국은 “그 어떤 국가도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은 위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하여 천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²¹⁾

20) 분발하여 성과를 이루어 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1) 미국과 대지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어도(釣魚島) 문제, 남중국해 문제, 한국의 사드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질적 성장의 경제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은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한 발전 경험과 전략을 서부로 이전시키겠다고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²²⁾ 따라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빈부격차와 부패는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양적인 성장을 바탕으로는 경제정책은 발전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²³⁾ 시진핑은 중국의 경제는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서는 세계경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양적 생산에서 질적 생산으로의 변화, 생산에서 분배로의 전이, 수출주도정책에서 내수 활성화로의 유도 등으로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고속 성장을 주도해 왔던 중국경제는 2012년을 기점으로 약 7%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선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하였고, 작년부터는 6%대 성장을 목표로 양적인 성장 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질적 생산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집권 2기를 맞는 시진핑은 업무보고에서 성장보다는 인민의 아름다운 발전으로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덩샤오핑이 설계한 개혁개방 정책의 보완과 수정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덩샤오핑 이후 지도자들은 개혁개방 정책을 대체할 만큼 우수한 경제정책을 강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덩샤오핑이라는 인물이 주는 중압감을 벗어나지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를 타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인민들에 보여 줄 수 있을 정도의 권력과 영향력을 겸비하고 있는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梁后东, “如何认识我国新时代社会的主要矛盾.” 『人民网』, 2017년 10월 19일, <http://opinion.people.com.cn/n1/2017/1019/c1003-29595844.html>(검색일:2017년 10.20).

23) 李培文, “开启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的起点和指针.” 『宁夏日报』, 2017년 10월 26일, <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6/c414305-29610448.html>(검색일:2017.10.30).

현재 중국은 직면한 사회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인민들이 보다 나은 삶(美麗生活)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진핑 집권 2기가 제시한 해결책이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이라는 화두로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경제 질서에 대한 변화를 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정책이라는 덩샤오핑의 경제체제를 탈피하여 신시대에 걸 맞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인민들의 공동부유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질적 생산과 분배위주의 경제 질서로 전환이며, 발전방식과 성장 동력의 변화를 추진하는 핵심단계가 바로 19차 당 대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질적 성장을 위한 3가지 과제로 제시한 것이 혁신중국(革新中國), 보다 나은 삶(美麗生活),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이다. 시진핑이 경제적인 질적 성장의 과제에 아름다운(美麗)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것은 인민들이 행복한 삶 추구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혁신중국은 중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과학적이고 진부한 체제를 개선하여 성장동력에 변화를 가하겠다는 의미이며, 보다 나은 삶은 인민들의 삶의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소강사회를 완성하고 나아가 대동사회로의 진입을 추진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중국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여 인민들이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중국특색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향후 중국경제의 노선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⁵⁾

24) 宋清輝, “十九大后中国将继续写经济发展新传奇,” 『中国台湾网』, 2017년 10월 25일, http://www.taiwan.cn/m/pl_54904/wyky_54908/201710/t20171025_11856760.htm(검색일:2017.10.30).

25) “[시진핑집권2기] ④中, 36년만에 '성장'보다 '행복추구권' 강조.” 『연합뉴스』(온라인), 2017년 10월 2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3/0200000000AKR20171023168600083.HTML?from=search>(검색일:2017.10.27) 재인용.

IV. 중국공산당 대회의 평가

제19차 당 대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중국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

당 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이 발표한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를 보면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다. 18차 당 대회 때 후진타오가 발표한 시간의 2배에 해당하는 3시간 24분간 연설에 대한 논평은 그 만큼 시진핑은 권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통제와 동원을 통한 통치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신시대 새로운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분야에 대한 정치의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긴 연설에 비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혹평도 있다.²⁶⁾ 다시 말해서 시진핑의 당 대회 업무보고는 장황하고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여 인민들의 이해를 돕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었다는 평가이다.

업무보고의 중요한 특징은 당핵심을 중심으로 하는 시진핑의 권력 강화라는 측면이 부각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개인 지배력 강화라는 과거로의 회귀 현상은 향후 중국정치가 해결하여야 할 딜레마인 동시에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²⁷⁾ 다시 말해서 덩샤오핑에 의해서 계획된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되었

26) 김예경, “시진핑 주석의 중국 19차 당 대회 보고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370호, 2017, p. 2.

27) 张国清, “党的十九大是具有划时代意义的大会.” 『重庆日报』, 2017년 10월 19일, http://www.cq.xinhuanet.com/2017-10/19/c_1121823613.htm(검색일:2017.10.20).

다고 볼 수 있는 집단지도체제의 변질과 후계자 지명으로 안정되고 투명한 정권교체를 하여왔다 격대지정이 무너졌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이다.

중국이 정말 신시대에 진입할 새로운 단계에 와 있는가? 시진핑이 이러한 정책을 강구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에서 자유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중국 꿈이라는 정책적 구호로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신시대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의문은 중국 인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당위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장황하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이다.

2. 권력집중 현상에 대한 평가

시진핑 중심의 권력집중현상은 그동안 유지하여 왔던 집단지도체제의 와해인 동시에 1인 장기집권의 길이 도래되었다는 평가이다. 다시 말해서 시진핑 1인체제의 공고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집권 2기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집권 1기부터 전임 지도자인 후진타오가 장쩌민의 그늘에 가리어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²⁸⁾ 집권 1기에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적인 선배뿐만 아니라 정적 모두를 청산하는 작업을 하여 왔으며, 그 청산의 끝이 바로 집권 2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집중 현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공고해 지고 광범위하게 나타남으로써 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 2기의 권력은 사상적으로는 덩샤오핑을 초월하였고, 정치권력은 마오

28) 殷晓霞, “国家发改委徐林解读十九大后的中国转型发展.” 『中国网』, 2017년 10월 29일, http://news.china.com.cn/cndg/2017-10/29/content_41810988.htm(검색일:2017.10.30).

쩌둥에 버금가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놀라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태가 과거 마오쩌둥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1인 독재체제로의 회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발전보다는 정체와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 집권 2기의 전략이 현실적으로 인민들의 지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지하는 바와 같이 인민들은 경제적인 자본주의의 혜택과 서구 사상을 접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욕구와 희망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권력은 사회주의체제로의 회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과 정치권력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국공산당이 인민의 민주화보다는 1인 독재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된다면 중국공산당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통제와 총동원 체제를 강구하면서 당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체제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은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인민들의 사상적 개방은 1당 체제보다는 다당제를 원하고, 공산당과 같은 폐쇄된 정당보다는 국민정당과 대중정당으로의 전환을 희망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중국공산당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의지 여부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당위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력집중 현상의 또 다른 우려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수월성, 신속성 및 지속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효율성과 융통성에 없는 폐쇄적인 정책입안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은 과거 1인 독재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라는 통치방식을 강구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지도부의 의사와 인민들의 바람을 협의와 소통이라는 방식을 동원하여 의사결정을 하여 왔다. 특히 외교정책에 관한 지도자의 독선이 정책

으로 이어질 경우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연한 외교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 세계 최대 강국을 중국의 꿈으로 주장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대외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시진핑 사상에 대한 평가

시진핑 사상의 정식 명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이다. 역대 정치지도자들이 당장에 삽입한 지도이념은 간결하고 이해가 용이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반해 시진핑 사상은 함축하고 있는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당 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주장한 배경에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1세대인 마오쩌둥 시대는 혁명이라는 화두가 시대정신인 동시에 당의 유일한 과제였다는 점에서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하는 항구적인 혁명이 중국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로 이어지는 시대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의 당위적 과제로 고도의 양적 성장이 공산당이 집권하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였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⁹⁾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혁명정당인 공산당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개혁개방 정책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과 분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으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시진핑 사상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에 따르면 중국 발전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1단계는 마오쩌둥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을 건설하여 중국인을 일어서게(站起來) 만들었고, 2단계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발전의 시동을 걸고 장

29) 徐瑾, “十九太后的中国: 经济仍旧是主要矛盾.” 『金融时报』, 2017년 10월 27일, <http://www.ftchinese.com/story/001074827>(검색일:2017.10.30).

쩌민과 후진타오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중국을 부강하게(富起來) 만들었다는 것이다.³⁰⁾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3단계로 중국을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어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로 강하게(強起來) 키워가자는 것이 시진핑 사상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집권 1기 5년 동안 과감한 정치경제적인 개혁보다는 상술한 바와 같이 부패척결과 위대한 중화민족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인민들의 지지를 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부패 척결을 통하여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구호를 통하여 인민들의 결합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상황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막강한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제시한 것이 시진핑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은 가장 먼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이며 이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지도부 인선에 자신의 측근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¹⁾ 시진핑이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지도이념을 당장에 명기하였다는 것은 마오쩌둥이래 처음이며, 당장에는 마오쩌둥 시대에 있었던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 당이 모든 것을 지도한다(黨政軍民學 東西南北中 黨是領導一切的)”³²⁾는 표기가 되다. 중국의 모든 것은 공산당이 결정하고 지도한다는 의미로 공산당만 장악하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이 당장에 삽입한 지도이념을 마오쩌둥과 같은 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진핑은 집권 2

30) “中国强起来的世界意义.” 『新华社』, 2017년 10월 21, <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1/c414305-29600760.html>(검색일:2017.10.21).

31) 17차, 18차 공산당 대회의 지도부 인선은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적 추천 방식으로 인선한 반면 급변 19차 당 대회는 지도부가 주도하는 면담방식으로 인선하였다는 보도가 있어 민주적이기보다는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32) 최유식, “좌회전 깡뻑이 쳐고 ‘毛澤東의 길’ 가는 시진핑.” 『조선일보』, 2017년 10월 30일.

기에 당장에 자신의 이름을 명기 하였다는 것은 시진핑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³³⁾ 그러나 사상이라는 단어는 국부와 같은 존재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한 국가에 두 개의 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상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저하는 것이 일반론적 시각이다. 사상이라는 단어는 ‘한 국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판단 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과연 시진핑 사상이 이러한 개념에 부합되는 판단체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통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과거 후진타오 시대 공산당원 선진화 교육³⁴⁾과 같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시진핑 사상에 대한 강제적 학습이 시도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시진핑 사상은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신시대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대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사상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집중, 지도부 인선의 비민주화, 1인 독재체제로의 전환, 시대적으로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 등으로 미래를 향한 전향적인 사상구도가 아니라 마오쩌둥으로 회귀하고 있어 시진핑이 말하는 신시대는 무엇인가에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 전망과 시사점

19차 당 대회 1중전회를 통하여 시진핑의 집권 2기의 구상을 피력하였다. 대표적인 특징은 시진핑의 권력강화,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집중 및 시진핑 사상의 당장 삼입이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은 제19차 당 대회에서 장악한 권력을 바탕으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통하여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

33) 张茂荣, “十九大为世界带来新的‘中国机遇.’” 『中国网』, 2017년 10월 27일, http://views.ce.cn/view/ent/201710/27/t20171027_26676081.shtml(검색일:2017.10.27).

34) 박광득, “후진타오체제의 정책변화와 그 전망.” 『대한정치학회보』 제14집 3호, 2007, pp. 87-113.

대국가를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동북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으로 과연 시진핑이 구상하는 대로 강력한 중국이 탄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은 그동안 덩샤오핑이 설계한 발전과 성장이라는 프레임을 깨고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개념과 확정된 세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향후 방향에 주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40년만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과 결별하고 마오쩌둥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집권 2기가 덩샤오핑을 넘어 시진핑이 주장하는 신시대로 넘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덩샤오핑을 능가하는 지도자로 평가받기에는 이른감이 없지 않다는 평가이다. 다시 말해서 시진핑의 지도력이 덩샤오핑보다 강력하지 않다는 측면이기에 시진핑이 자유로운 권력을 향유하여 자신만의 길로 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그 단적인 예가 왕치산의 퇴진이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의 가장 측근으로 분류된 왕치산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하여 했으나 덩샤오핑이 제도화한 연령규정을 벗어나기 어려웠으며, 천얼민이 진입하지 못한 것도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발탁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권력은 아직까지는 덩샤오핑의 영향력을 벗어난 절대적 권력이라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당 대회 이전부터 권력을 강화하고 집단지도체제에서 1인체제로의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을 5명으로 줄이고, 당 주석직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실현시키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중국 꿈이라고 하는 중화민족의 부흥이 미국을 능가하는 현대적 강국으로 변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개혁개방 정책이후의 초고속 성장이라는 통계지표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평가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을 능가하는 강국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경제적인 측면에 한정된 평가라는 점에서 실

현 가능성이 적다는 측면도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강대국이라면 경제적인 강대국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강대국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미국을 능가할 정도의 역량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문화적 강대국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리고 시진핑 집권 2기는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2050년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시진핑에 의하면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구축하면서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치는 과거로 회귀하여 언론통제, 사상통제로 가고 있는 국가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인가는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³⁵⁾

덩샤오핑은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인민들의 삶을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 아래 정치국 상무위원을 이공계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이른바 工程師治國(엔지니어를 중심으로 국가를 다스린다)을 단행하여 후진타오 집권 2기에는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1명만 문과출신이었지만, 시진핑 집권 2기는 7명 중 시진핑 본인만 이과 출신이고 나머지 6명은 문과 출신으로 인선하였다는 것은 경제적인 성장보다는 절대 권력을 뒷받침할 사상적인 통제와 선전을 우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진핑 집권 2기의 대외정책이 수세적인 입장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중관계에 주는 시사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당 대회 업무보고에는 북핵과 관련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의도를 알 수 없으나, 이미 당 대회를 통해 강력한 권력을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중관계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에 절대적인 권력과 제조업 강국에서 서비스업 강국으로 변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한국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ham할 수 있으며, 동북아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을 바탕으로

35) 张德勇, “建设现代化经济体系 推动实现高质量发展.” 『国际在线』, 2017년 10월 31일, http://news.cnr.cn/comment/latest/20171031/t20171031_524007067.shtml(검색일:2017.11.1).

더 강력한 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론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³⁶⁾

신형국제관계라는 대외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사드문제는 중국의 핵심국익에 관련되는 사안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대한국 완화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부정론보다는 긍정론 쪽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내년 3월에 개최하는 양회의 결과에 주목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6) “中韩双方就中韩关系等进行沟通.” 『외교부』, 2017년 10월 31일, http://www.fmprc.gov.cn/web/wjbxw_673019/t1506044.shtml(검색일:2017.11.1.); “中韩关系转暖韩产业界将迎来彩虹.” 『环球时报』, 2017년 11월 1일, <http://opinion.haiwainet.cn/n/2017/1101/c345437-31164713.html>(검색일:2017.11.1).

참고문헌

- “[시진핑집권2기] ④中, 36년만에 '성장'보다 '행복추구권' 강조.” 『연합뉴스』(온라인), 2017년 10월 2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3/0200000000AKR20171023168600083.HTML?from=search\(검색일:2017.10.27\)](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3/0200000000AKR20171023168600083.HTML?from=search(검색일:2017.10.27)) 재인용.
- “당헌에 새겨진 시진핑 사상…중앙委 점령한 ‘시진핑 군단’.” 『조선일보』 2017년 10월 25일.
- “시진핑 ‘신시대’ 선언은 덩샤오핑 시대에 작별을 고한 것.” 『중앙일보』 2017년 10월 31일.
- “시진핑, 2인자의 난 핑계삼아… 후계 투톱 발탁 안할 듯.” 『조선일보』 2017년 10월 21일.
- “중앙군사委 신임 3명도 모두 시진핑 측근.” 『조선일보』 2017년 10월 26일.
- 김예경, “시진핑 주석의 중국 19차 당 대회 보고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37호, 2017.
- 박광득, “후진타오체제의 정권변화와 그 전망.” 『대한정치학회보』 제14집 3호, 2007.
- 정재홍, “중국꿈 실현을 위한 시진핑 1인 지배체제 본격화.” 『세종논평』 No.2017-43, 2017.
- 최유식, “좌회전 캄백이 켜고 ‘毛澤東의 길’ 가는 시진핑.” 『조선일보』 2017년 10월 30일.
- “十九大政治局常委：习李连任五人新晋 未确定接班人.” 『中文网』, 2017년 10월 25일, [http://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41745264\(검색일:2017.10.30\)](http://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41745264(검색일:2017.10.30)).
- “英媒：中共已经成熟 西方应该清醒了.” 『欧洲时报网』, 2017년 10월 26일, [http://www.oushinet.com/china/chinanews/20171026/276122.html\(검색일:2017.10.27\)](http://www.oushinet.com/china/chinanews/20171026/276122.html(검색일:2017.10.27)).
- “外媒：习近平不设接班人的五个原因.” 『大纪元』, 2017년 10월 25일, [http://www.epochtimes.com/gb/17/10/25/n9770477.htm\(검색일:2017.10.30\)](http://www.epochtimes.com/gb/17/10/25/n9770477.htm(검색일:2017.10.30)).
- “中国强起来的世界意义.” 『新华社』, 2017년 10월 21, [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1/c414305-29600760.html\(검색일:2017.10.21\)](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1/c414305-29600760.html(검색일:2017.10.21)).
- “中韩关系转暖韩产业界将迎来彩虹.” 『环球时报』, 2017년 11월 1일, [http://opinion.haiwainet.cn/n/2017/1101/c345437-31164713.html\(검색일:2017.11.1\)](http://opinion.haiwainet.cn/n/2017/1101/c345437-31164713.html(검색일:2017.11.1)).
- “中韩双方就中韩关系等进行沟通.” 『외교부』, 2017년 10월 31일, [http://www.fmprc.gov.cn/web/wjbxw_673019/t1506044.shtml\(검색일:2017.11.1\)](http://www.fmprc.gov.cn/web/wjbxw_673019/t1506044.shtml(검색일:2017.11.1)).
- 梁后东, “如何认识我国新时代社会的主要矛盾.” 『人民网』, 2017년 10월 19일, [http://opinion.people.com.cn/n1/2017/1019/c1003-29595844.html\(검색일:2017.10.20\)](http://opinion.people.com.cn/n1/2017/1019/c1003-29595844.html(검색일:2017.10.20)).
- 刘元春, “五大发展理念是新时代科学发展的抓手.” 『央广网』, 2017년 10월 27일, [http://news.youth.cn/gn/201710/20171027_10928987.htm\(검색일:2017.10.30\)](http://news.youth.cn/gn/201710/20171027_10928987.htm(검색일:2017.10.30)).
- 李培文, “开启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的起点和指针.” 『宁夏日报』, 2017년 10월 26일, [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6/c414305-29610448.html\(검색일:2017.10.30\)](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6/c414305-29610448.html(검색일:2017.10.30)).
- 徐瑾, “十九大后的中国：经济仍旧是主要矛盾.” 『金融时报』, 2017년 10월 27일, <http://www.>

- ftchinese.com/story/001074827(검색일:2017.10.30).
- 宋清辉, “十九大后中国将继续写经济发展新传奇,” 『中国台湾网』, 2017년 10월 25일, http://www.taiwan.cn/m/pl_54904/wyky_54908/201710/t20171025_11856760.htm(검색일:2017.10.30).
-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原文).” 『新华网』, 2017년 10월 27일, http://news.xinhuanet.com/politics/19cpcnc/2017-10/27/c_1121867529.htm(검색일:2017.10.28).
- 王传宝, “把握新的历史方位, 续写新的时代华章.” 『光明网』, 2017년 10월 18일, http://guancha.gmw.cn/2017-10/18/content_26541742.htm(검색일:2017.10.18).
- 殷晓霞, “国家发改委徐林解读十九大后的中国转型发展.” 『中国网』, 2017년 10월 29일, http://news.china.com.cn/cndg/2017-10/29/content_41810988.htm(검색일:2017.10.30).
- 张国清, “党的十九大是具有划时代意义的大会.” 『重庆日报』, 2017년 10월 19일, http://www.cq.xinhuanet.com/2017-10/19/c_1121823613.htm(검색일:2017.10.20).
- 张德勇, “建设现代化经济体系 推动实现高质量发展.” 『国际在线』, 2017년 10월 31일, http://news.cnr.cn/comment/latest/20171031/t20171031_524007067.shtml(검색일:2017. 11.1).
- 张茂荣, “十九大为世界带来新的‘中国机遇’.” 『中国网』, 2017년 10월 27일, http://views.ce.cn/view/view/ent/201710/27/t20171027_26676081.shtml(검색일:2017.10.27).
- 周喜安, “要充分认识党的十九大的重大意义和重大成果 深入学习领会全面贯彻落实大会精神.” 『人民网』, 2017년 10월 31일, <http://sc.people.com.cn/n2/2017/1031/c365886-30873740.html>(검색일:2017.10.31).
- 何清涟, “孙政才落马, “接班人”名分惹的祸?” 『大纪元』, 2017년 7월 28일, <http://www.epochtimes.com/gb/17/7/28/n9473730.htm>(검색일:2017.10.20).

ABSTRACT

A Study on the Implied Meaning and Prospect of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CPC)

Park, Kwang-Deuk(Daegu University)

Who is Post Xi Jin-ping and what is the policy of Xi Jin-ping's second term is the biggest concern of the 19th CPC. But, he did not appoint a successor, and the "Xi Jin-ping Thought" w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Communist Party. And it is evaluated that the concentration of power centered on Xi Jin-ping appears. In particular, Deng Xiao-ping's reform and opening policy has been argued to be complemented and revised in order to enter a new era. It can be said that Xi Jin-ping broke up with the Deng Xiao-ping policy and went up to the same rank as Mao Ze-dong. There is a negative image that it can change into recession and congestion rather than political development. The 19th CPC predicts changes in China's domestic politics, economic policies, foreign relations, and China's future prospects. This is the motive and purpose of this paper.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meaning of the new leader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Secondly, analyzes "Xi Jin-ping's Thought", foreign policy and economic policy,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second term of Xi Jin-ping. Third, evaluates the Communist Party convention. Finally, we analyze the prospects and implications of Chinese politics since the party congress.

Key words: The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Xi Jin-ping, Xi Jin-ping Thought, New International Relations, China-US Relations.

투고일 : 2017년 11월 7일 • 심사일: 2017년 12월 18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22일